

“먹거리 암행어사 뜨다” 영암군, 안전관리 감시 강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2명 대상 직무교육 실시

향후 2년간 관내 식품접객업소 등에 지도·점검

영암군은 지난 10일 오후 2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2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외식산업의 중심이 되는 음식점과 카페, 식품제조·가공·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상태 점검, 부정불량 식품 감시활동, 다소비 유통식품 수거업무 지원 등을 펼치며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정기 직무교육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자질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임무 및 감시요령 ▲어린이보호식품전담관리원 행동요령 ▲식품위생법규 설명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교육을 마친 12명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은 향후 2년간 영암군 관내의 식품접객업소, 식품 제조·유통·판매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위해 식품 감시,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현장에서 유용하게 적용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역할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 이번 정기교육을 통해 감시원의 전문성과 감시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는 만큼 먹거리 안전에도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암=조대호기자



무안군, 지방물가 안정관리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무안군은 지난 9일 치수는 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개인서비스업 관계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군 물가담당부서, 한국외식업중앙회 무안군지부, 한국미용사중앙회 무안군지부, 한국숙박업중앙회 무안군지부, 한국세탁업중앙회 전남지회 등 관계자와 함께 최근 물가동향과 무안군 물가안정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관계회회는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관계업종의 물가동향 모니터링 운영, 물가안정관리 캠페인 참여, 바가지요금 근절 단속 등 군과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군은 지역평균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우수한 품질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금년에 20개소 추가 지정하여 업체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의 소모품을 지원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운영 등을 통해 개인서비스업소들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해향 지역경제과장은 “지역물가 안정에 관계회회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물가안정으로 소비촉진 분위기 조성에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무안=이성기기자

신안군, 스마트빌리지 서비스 고도화사업 우수등급 인증

신안갯벌의 명품 낙지, 자원관리 인공지능화 토대 마련

신안군은 지난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빌리지 ‘드론·AI 기반의 지능형 낙지자원 관리 고도화’의 평가결과 우수등급으로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19년부터 지능정보기술(ICT)을 활용하여 농어촌의 생산성 향상, 안전강화 및 생활

편의 서비스 발굴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신안군은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2년 연속 선정되어 국비 총 13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연속 추진해왔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갯벌어장의 드론·인공지능 기반 낙지자원량 파악, IoT기술과 지능형 CCTV를 활용한 불법조업 감시 및 알람 서

비스, 갯벌환경 모니터링 원격시스템 구축 등으로 효율적인 자원관리와 남획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21년 첫째 사업대상지로 도초면 갯벌어장을 선정, 낙지 자원관리와 어업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갯벌어장 상세지형도를 작성, 낙지의 숨구멍인 부릿의 개체인식을 통해 자원관리와 안전관리의 초석을 쌓아, 2022년 자원관리 대상지 확보차원의 계속사업으로 선정, 사업대상지를 지도,

신안=이덕주기자

압해, 하의, 안좌, 암태로 추가 확대해 AI기반의 지능형 낙지자원 관리 고도화 평가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유네스코에서 세계자연유산으로 인정받은 신안갯벌은 세계최고의 갯벌환경을 토대로, 국내 최고이자 최대의 낙지 생산지이다”며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현명한 자원관리를 통해 갯벌어장의 건강성 유지와 주민 소득증대에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목포시, 시내버스 재개 환영 재발방지 위한 개선안 요구

목포 시내버스가 14일부터 운영을 재개한 가운데 목포시가 입장문을 발표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시내버스 회사의 경영개선안을 요구했다.

먼저, 박홍률 목포시장은 가스연료비 미납으로 64일 동안 중단된 시내버스 운영에 대해 인내하고 견뎌준 시민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어 버스회사가 가스 연료비 체납을 자체 해결 했지만 여전히 시내버스 운행중단 우려가 존재한다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경영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시는 태원·윤진 운수가 목포시의 기업회생 절차 제안보다 더 나은 경영개선책을 제출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향토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목포시도 중단없는 시내버스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임을 밝혔다.

먼저, 재무관리단 관련 사항은 시·시의회·버스회사간 3자 협의 후 파견 여부를 결정하고 버스회사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내버스 운영 중단이 재발되면 즉시 사업면허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만일 사업면허 취소로 시내버스 운영이 중단되면 공공형 버스 확대와 대체 사업자 투입 등으로 시내버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친환경 농업 실천” 함평군, 고농도 유용미생물 공급 재개

고초균·효모 등 5종...이달 22일부터 공급 시작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한 고농도 유용미생물 공급을 재개한다.

함평군은 “노후화된 미생물 배양기 2대를 고성능 신규 배양기로 교체하고, 오는 22일부터 고농도 유용 미생물을 재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고초균, 유산균, 효모, 광합성균, 약취저감균 등 5종류의 미생물을 연평균 150톤 생산해 주 2회(수·목요일) 공급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공급 희망일 기준 일주일 전까지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유용미생물실(☎3320-2890)로 신청하면 된다.

미생물은 토양 살포시 작물생육을 촉진하고 토양개량에 효과가 있다. 또한 면역력을

높여 병해충 발생 빈도를 낮추고 색과 당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며 축산에 이용할 경우 약취 감소와 가축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사용방법은 작물에 ▲관주 시비하는 경우 500~1,000배 ▲옆면 시비하는 경우 200~500배 ▲축산용은 약취제거 100~200배 ▲음수투여는 1,000배~2,000배 희석해 사용하면 된다.

현재 함평군은 비료용 미생물의 경우 리터당 300원, 사료용은 리터당 400원에 유상 공급하고 있으며, 비료용 구입 시 반드시 개별 용기를 지참해야 한다.

박은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유용미생물은 적기에 사용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며 “미생물을 적극 활용하여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